

經營學 學士 學位 請求論文

공조직과 사조직 비교 연구

지도교수 : 홍길동

이 論文을 經營學 學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2月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20110000

김경영

審 查 欄

評 點	A	B	C	F

김경영의 學士 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5 年 12 月

經營學科

지도교수 홍 길 동 印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4
1. 행정정보의 개념과 유형	4
2. 행정정보공개 방식	5
제 2 절 행정정보공개 필요성	6
1. 행정정보공개 대두배경	6
2. 행정정보공개 효용	7
제 3 절 행정정보공개 제도화 과정	11
1.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 과정	11
2. 중앙정부의 제도화 과정	13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태	19
.	
.	
.	
제 5 장 결론	32
참고문헌	32

제 2 장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과 실태

제 1 절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

1. 동남권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

1) 광역행정의 개념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한다¹⁾. 광역행정은 도시화로 인해 형성된 광역도시권과 연담도시권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협력의 궁극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합병·통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²⁾. 이러한 광역행정은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재정과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문제,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토지이용에 관한 갈등의 완화, 중복 행정서비스의 제거 등의 이유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³⁾.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있어서 광역행정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부산을 중심으로 볼 때, 울산과 경남의 김해·양산·진해가 거대한 하나의 광역도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계속 해제되고⁴⁾ 도시간 계획교통망이 완성되면 이러한 모습은 더욱 확연해질 것이다. 첫째는 동남권이 갖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고 다음은 광역행정 방식의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효과이다. 여기서 첫째의 경우, 동남권의 공간구조적 연결성과 기능적 상호보완성 그리고 공동사업 및 행사의 추진으로 나누어 그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고, 둘째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진과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1) 박우서,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2001), p.15.

2) 정순관, “지역협력을 위한 광역행정과 광역권의 관리방안,”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4호 (2002), pp.129-153.

3) 박종화 외,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2), pp.253-255.

4) 종전에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에 걸쳐 총 600.1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46.1%에 해당된다.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권 지역은 국토 공간구조상의 흐름이 한 마디로 연담도시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전역이 도시화 현상의 심화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권으로 묶일 수 있으며 특히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시권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남권의 경우에 그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즉

부산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에 양산, 김해, 진해가 위치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도 60Km에 불과한 만큼, 한 마디로 동일한 공간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상의 연결성은 각 도시별 인구와 물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나아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 된다.⁵⁾ 즉 주거지와 직장, 교육, 문화, 의료 등 일상생활의 주요 사항들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인

5) 동남권역에 있어서 통근·통학현황을 살펴보면 주변도시에서 부산으로의 통근·통학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부산에서 주변 지역으로 역통근을 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1995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본 12세 이상 역통근·통학인구는 울산이 11,606명, 양산이 20,875명, 김해로의 통근통학이 9,153명 마산창원진해지역으로 7,033명 등 5만명 이상의 인원이 역통근하고 있다. 신정철(2001: 346)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 있던 사업장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이주되지 못하여 역통근현상이 발생하거나 교육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직장만 도시외곽에 두어 역통근하는 현상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산은 주거지와 문화교육시설, 상업용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남권의 지역내부에서 특성을 가지고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